

# 광주시, 인공지능 1호 외국기업 유치 성공

### 세계적 에너지 플랫폼 기업 인코어드P&P 광주법인 설립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입주...스타트업 창업·일자리 기대

‘인공지능(AI) 수도’를 선포한 광주시가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 1호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앞서 국내 최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의 기술센터를 비롯한 국가보안연구소 광주사무소 설립 협약,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AI 표준연구원 등 인공지능 선도기관 및 업체를 연이어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연이은 투자유치 효과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의 광주행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국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

폼 기업인 인코어드가 광주에 법인(인코어드 P&P) 설립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지난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이다.

투자협약이 구속력을 갖지 않아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고 투자로 이어지더라도 이사회 의결, 자금 조달 등 절차 이행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인코어드 P&P는 광주 과학기술원(GIST)에서 우선 연구를 시작하고 남구

에너지 밸리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인코어드는 조지 소로스의 QSP, 일본 소프트뱅크, 삼성, LG 등으로부터 3250만 달러를 투자받은 기업이다. 인코어드는 1초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검출해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알려주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미터 에너지 특을 제작한 기업이다.

인코어드는 앞으로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돕고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주력사업인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인코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그리드 매니지먼트 및 사물인터넷(IoT) 센서 솔루션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힘을 보탬 방침이다.

최정웅 인코어드 P&P 대표는 “실리콘밸리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인공지능 응용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첨단 에너지 기술이 광주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코어드의 광주 진출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광주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최상의 여건에서 생산, 연구개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착한 임대인·코로나 피해 중수출기업 전남도 7월 부과 재산세 절반 깎아준다

전라도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 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올해 7월에 부과될 건물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전남도는 10일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별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

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출기업 등은 올해 1/4분기 매출액 기준 지난해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혜택을 못 받은 임대인이나 기업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특히 중국 수출기업 등에 지원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돼 타 시도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 전국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말까지 연장

### 고용상황 불확실성 커져 구직급여·직업훈련 지원 지속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목포시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전남 서남권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참가 시 구직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요건 및 한도 확대 ▲재취업 및 직업훈련 참가 지원 확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

지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이다.

지난 2018년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당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조선업 관련 종사자가 2015년 대비 1만2000여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된 바 있다.

현재 조선업 수주현황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변동성이 있고,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져 지역산업의 본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에 대해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강변도로는 총 길이 51.9km 중 나주 영산에서 무안 몽탄 34km 구간을 11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 나주~무안 ‘영산강 강변도로’ 34km 개통

‘영산강 강변도로’ 34km가 11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통한다.

전남도는 10일 “영산강 강변도로는 총 길이 51.9km 중 나주 영산에서 무안 몽탄 34km 구간을 대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2051억원으로, 8년 6개월이 걸렸다.

미개통 구간 중 무안 몽탄에서 일로 구간 4.7km는 400억원을 들여 올 7월에 개통하고, 남악까지 13.2km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개통이 나주에서 무안까지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변 관광 수요를 창출해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

여하고, 자전거 라이딩, 마라톤 코스, 역사 기행로 등 관광·레저·스포츠 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로수 숲길과 전망대, 쉼터도 함께 조성해 세계적인 명품드라이브 코스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도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영산강 강변도로 개통으로 고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접근이 쉬워지고, 교통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구간을 지방도로 승격시켜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농산물은 유자

1976만 달러...배·매추 順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농산물은 유자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이 쌀 등 35개 주요 농산물의 지난해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자, 배, 배추, 파프리카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주요 농산물 수출 총액은 6858만 달러였다.

유자 1976만 달러, 배 1126만 달러, 배추 772만 달러, 파프리카 751만 달러였다. 쌀 수출액은 26만 달러였다. 유자는 주로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됐으며, 유자차(유자청) 형태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액 규모가 300만~400만 달러인 작목은 버섯, 감귤, 양배추, 장류로 조사됐다. 수출액은 버섯 393만 달러, 감귤 389만 달러, 양배추 318만 달러, 장류 314만 달러였다. 멜론과 양파도 각각 155만, 137만 달러 수출됐다. 미늘 수출액은 101만 달러였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 작목발굴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농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가격안정화 유지 및 외연 확장 등 수출농업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시 전국 최초 ‘이동방역봉사차량’ 운영

자원봉사자들 요일별 방역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이동방역봉사차량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동방역봉사차량’은 신속하고빠르게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도입된 이동방역봉사차량은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탑재해 광주지역을 차량으로 순회하며 시민이 원하는 곳은 즉시 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이용섭 시장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쌍촌중구아파트 입구와 6개 동(1160세대) 통로를 방

역하는 활동으로 이동방역봉사차량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방역 차량은 지역별 요일제로 시민 다중 왕래지역을 매일 1회 이상 방역한다. 지역별 요일제는 ▲동구 화요일(아시아문화전당→조선대→동구청) ▲서구 월요일(시정→유스퀘어→풍곡사거리) ▲남구 수요일(남구청→봉선동→진월동) ▲북구 목요일(말바우시장→전남대→우치공원) ▲광산구 금요일(국민은행사거리→삼부대→첨단롯데마트) 등 순으로 추진된다.

토요일에는 송정역,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역에서 집중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20. 03. 06.(금) ~ 03. 19.(목)

전남지역 거주(예정)종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란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지원내용  
마일리지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접수 방법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 061) 729 - 2914  
북색에너지연구원 : 061) 331 - 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061) 362 - 5205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